

센텀시티 자성불선원 개원

자랑 스님 "삼독 흠쳐가니 참된 성품 찾아라"

부산 해운대 IT, 영상, 전시, 컨벤션,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단지 센텀시티에 불법을 전하는 첫 포교원이 문을 열었다.

양산 통도사 해운대 포교원 부처님마을의 본원 자성불선원(주지 효범)이 센텀시티 내 센텀IC타워 508호에 문을 열고 9월 27일 입소식을 봉행했다.



9월 27일 자성불선원 개원식에서 자랑 스님이 법문했다.

이날 입소법회에는 前 직지사 주지이자 관오사 불교 사회복지회 회주 자랑 스님과, 서운암 명조 스님, 자성불선원 수안 스님, 중국 천진 부처님마을 신도대표 문곡거사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해 자성불선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선원장 효범 스님은 "사랑, 명예, 재물을 흠쳐면 지옥에 가지만 증생에게 탐, 진, 치를 흠쳐면 극락에 가게 된다"며 "앞으로 자성불선원 모

든 신도들의 삼독을 내가 흠쳐갈 테니 자성불의 뜻대로 스스로의 참된 성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소법회에 이어 11시 30분부터는 자랑 스님의 축사 및 <육조단경> 특별 강의 총 13회 중 첫 번째 시간이 마련됐다.

자랑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는 12월 2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개원식은 10월 중순 열린다. (051)780-8855 박지원 기자

용호복지관 '투명경영' 선언

사회복지증사자 교육 지원사업 ... '따뜻한 동행' 출범

부산 불교계 복지관에도 '투명경영'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2008 윤리경영실천기반 27기로 선정돼 9월 26일 '윤리경영 선도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윤리경영 선도사업 선포식은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윤리경영 선도기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증사자의 역량 강화와 투명성 확립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6일 '윤리경영 선도사업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종철 남구청장 외 시·구의원, '따뜻한 동행' 자원봉사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윤리경영 선도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보고, 전직원이 지역주민에게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포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자원봉사단·후원회 '따뜻한 동행'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국제도시 부산 남구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으로 거듭나길 중심으로 기원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가 운영 중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한때 타 기관의 부실운영으로 말려져 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불교계 사회복지업의 투명성과 가능성, 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가능하는 계도가 되고 있다. (051)628-6737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미륵종 승려연수교육 입교

한국불교미륵종은 9월 25일 오전 10시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미륵종 승려교육장에서 2008년도 사미계 수계식 및 승려연수교육 입교식을 봉행했다.



미륵종은 9월 25일 사미계 수계식과 승려연수교육 입교식을 봉행했다.

각 말사에서 1년간 행사수업을 받던 예비스님 24명(사미14명, 사미니10명)은 18일 입교해 일주일간 대중생활을 하며 그동안 공부한 <초발심자경문>과 승려로서 지녀할 습의 등을 시험받고 이날 수계식을 가졌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미륵종승려단기연수교육은 2박3일의 일정으로 종도스님 120명이 참석해 '미륵부처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종회의장 혜월 스님과 용산사 만성 스님의 강의를 들었다.

무원장 송정 스님은 "종단의 발전과 종도들의 화합은 수행자의 자세를 망각하지 않고 초발심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종단에서 4년마다 봉행하는 비구계 수계식도 함께 열렸다. 영민 서부경남지사장

울산 월봉사 10월 12일 문화예술축제

달빛 고운 절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월봉사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한다.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특별법문, 산사음악회, 선사화전, 다도시연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사부대중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찰음식 시연회, 백일장, 사생대회, 효자호 부시상식, 바자회 등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축제를 맞아 부처님 진신사리 천경법회도 열린다. (052)251-4602 박지원 기자

덕명대중사 유물전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신)에서는 2008년 범어사 개산대제를 맞아 '남곡당 덕명대중사 기증 유물 특별전'을 마련한다.

덕명대중사 기증 유물 특별전 '庭前柏樹子, 뜰 앞에 잤나 무'에는 안적사의 귀중한 성보인 지장탱, 신중탱, 아미타후불탱을 비롯한 한국근현대사의 주요 작가들의 서화류 총 8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 경남지역 불화의 장엄함과 화풍, 다양한 서체에 담긴 필력,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전시 기간은 10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범어사 성보박물관내에 상설 전시된다. (051)508-6139 박지원 기자

천진불 미소 '찰각찰각' (사)동련 어린이불교사진&UCC공모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에서는 어린이불교사진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제3회 천진불의 미소 어린이불교사진&UCC 공모전'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세계를 표현한 다양한 사진 및 UCC를 공모한다.

사진 분야는 어린이의 순수한 미소, 동심세계를 표현한 인물 사진으로, 규격은 컬러 및 흑백사진 8×10, 디지털 사진의 경우 300만 화소(2048×1536)이상으로 한다.

UCC 분야는 어린이법회 등 모든 불교활동 및 어린이 포교에 관한 내용으로, 규격은 컴퓨터에서 재생시킬 수 있는 동영상 파일로 해상도 640×480(200MB 이내), 총 3~10분 내외면 된다.

시상내용은 대상 1명 상금 100만원 및 상장, 금상 각 부문별 1명씩

상금 50만원 및 상장, 은상 각 부문별 2명씩 상금 20만원 및 상장, 동상 각 부문별 3명씩 상금 10만원 및 상장, 가작 상장 등이 수여된다.

접수마감은 10월 31일까지 본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첨부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료는 무료이며 10월 31일 이후에는 제4회 대회로 자동 응모돼 연중 상시 참가가 가능하다.

이사장 지현 스님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세계가 담긴 미소를 통해 어린이와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전문 사진작가 솜씨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면 응모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864-4569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길상사 주지 자인 스님

바르고 맑은 세상 만들기 '동분서주'

"참회의 뜻을 아는가? '참' 자는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것. '회' 자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는 것이다. 대통령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교분리를 지켜 달라."

9월 26일 오후 한나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회 부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가진 간담회장이 한 스님의 한마디에 회의장이 일연 숙연해졌다. 옳다고 믿는 일은 반드시 행하는 대쪽같은 분이 바로 자인 스님이다.

부산시 강서구 봉화산 기슭에 위치한 백옥전불도량 길상사, 대웅전과 요사채 각 1동씩 3층 규모로 수행과 휴양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대웅전은 삼존불과 1080불은 백옥, 수미단과 바닥은 황옥, 신중탱화는 흑옥 등으로 장엄하게 조성했다.

자인 스님은 "우리 절이 천년고찰로 유지되려면 화재 위험이 적은 소재여야 하고, 자연 그대로의 숲속 별장 같은 수행도량이다. 올해부터 자인 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연합회는 부산의 각종 불교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정부와 사회단체와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단체다. 스님은 "연합회는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팔관회, 시민연등축제, 사명대사추모법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며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등과 소통의 장도 열어 종교편향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단을 떠나 스님들과 불자들이 관심은 가지지만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해 늘 아쉽다"며 불교종단, 법인, 신행단체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인 스님은 생령나눔실천본부 부산본부장으로 아프고 소외받는 이가 없는

숲속 별장 같은 길상사 신행도 휴식도 'OK'

순수한 부처님을 모시고 싶어 욕을 선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백옥도량의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진다. 스님은 "도시에 사는 불자들이 주말에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쉬러오는 별장 같은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다"며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휴양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기도를 끝낸 신도들은 옥방에서 속품을 뜨며 쉬는다. 매주 길상사에 들른다는 한 보살은 "절에 와서 마음 가다듬고 속품 뜨니까 더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이렇듯 길상사는 일상에 지든 도시민들을 위해 스님이 만든 숲속 별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생령나눔의 장기 기증운동과 의료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 스님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타종교에 비해 늦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자인 스님의 포교는 '실천'이다. 현재 스님은 몇몇 스님들과 뜻을 모아 해동고등학교 원호장학회에 연간 27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10년째 부산교도소 지도법사로 활동 중이다. 매달 용두산공원의 노숙자 300여명에게 대중공양을 하고, 올해부터는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에 후원금을 내며 일요법회의 군법사로서 끊임없이 불국토를 만들기 위한 포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박지원 기자

태(胎)중 아기(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약천사 양력 10월 25일(토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육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사들 사는데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상애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약천사 방생안내
11월 3일(음.10월 6일 월요일)에 등명낙가사(강원도 강릉)로 방생법회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합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인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